

2021 신년호 | VOL.101

너와 내가 하나의 원으로 만나 조화로운
두바퀴가 될 때 먼길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두바퀴



경고 :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



창원레포트파크 새로운 시작



▲ 기업이미지(CI)



▲ 브랜드이미지(BI)

창원레포트파크로 새로운 시작

사명변경을 사업영역 확대의 초석으로...

2000년 설립된 공단이 지난 12월 31일, 20년만에 창원레포트파크라는 사명으로 변경하고 현판식과 함께 기업이미지(CI)와 브랜드이미지(BI)를 공개했다. 공단은 주요 사업인 경륜(경정)과 누비자에만 국한돼 있는 사업영역 확대와 사행산업인 경륜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위해 창원레포트파크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단은 이번 사명변경으로 그에 걸맞는 힐링재활승마, 해양레저스포츠, 그랜드 펫파크 등 다양한 부분의 레포트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경상남도과 창원시에 건의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현판식에서 김도훈 이사장은 “향후 공단의 새로운 대장정을 알리는 서막이자 다양한 신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영역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 만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말했다.

즐거움이 하나로 모이는 곳 ‘조이원’

이 날 현판식과 함께 공개된 기업이미지(CI)는 리듬감 있는 리본과 같은 원을 통하여 축제와 같이 즐거움이 넘치는 공간을 표현했다. 세 개의 자유로운 형태의 타원은 식물의 잎을 숨은 이미지로 표현하여 공원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고, 이를 셋으로 연결 표현하여 가족이 함께 오는 공원,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공단의 의지를 반영했다. 또 브랜드이미지인 조이원은 창원레포트파크 CI와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내외부 고객에게 공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이원은 ‘즐거움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았으며 동시에 창원의 원을 ‘one’ ‘元’ ‘原’으로 재해석하여 창원과의 관계성과 연속성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단의 기본적 주제인 사이클을 통해서 연상할 수 있는 두 개의 원을 담았다.





● 부산 다대포에서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두바퀴

2021 신년호 | VOL.101

CONTENTS

- 04 이사장 신년사 김도훈 이사장
- 06 경륜뉴스 2021 CEO 메세지
- 08 경륜칼럼 20년간의 발자취
- 10 온라인발매 온라인발매는 가장 건전하고 투명한 발매 수단
- 12 두바퀴 인생 임채빈(25기)선수
- 14 공단지전거팀 신축년 공단 자전거팀의 해
- 16 100세대 차아관리 구취&시린치아 관리 Q&A
- 18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주상절리를 품은 경주 파도소리길
- 20 누비GO! 누비자로 떠나는 웅천역사 둘레길
- 22 독자기고 창원레포츠파크에 가는 기대
- 25 창원레포츠파크 소식 주요봉사활동 등





공 단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해가 지나고, 신축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창립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한해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경륜사상 처음으로 8개월이 넘는 휴장 기간을 보내야 했고, 그만큼 직원 여러분들의 고충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석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장기간 경주중단으로 인한 매출 및 경영손실 또한 사상 최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한해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분명히 새로운 도약과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조직진단에 따른 마무리 작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사명변경에 따른 신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명변경에 따른 후속 업무는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고, 개혁과 혁신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진통이 수반됩니다. 지난 시간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픔만큼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은 뒤로하고, 서로가 단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시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연말 8개월간 중단했던 경주를 속개해본 결과 기대했던 것보다 매출 회복속도가 더디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결국 떨어졌던 매출액을 어떻게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개장이 되면 모두 이 한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맑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중에서 사람이 줄어들어 업무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앞날도 점차 밝아질 것입니다.

공단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2021년 올해 경영목표를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경영정상화 초석 마련**』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떨어진 매출을 끌어올려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더 많은 참여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19의 여파와 조직 진단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수록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경쟁력이 그다지 좋은 조직은 아닙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려있는 시장이 아니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올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온라인베팅의 관철이고, 또 하나는 신규사업 진출입니다. 갈수록 경륜이나 경정사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지방공기업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나 봉사



보다 손익 위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이 두가지 과업 달성에 우리모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모든 것은 결국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 회복입니다. 새로운 사명에 걸맞는 신 사업발굴, 온라인베팅 관철, 그리고 경비절감과 매출증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봅시다!

그리하여 일할 맛 나는 직장, 희망이 있는 직장,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2021년에는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1 새해 아침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김도훈

창원
레포트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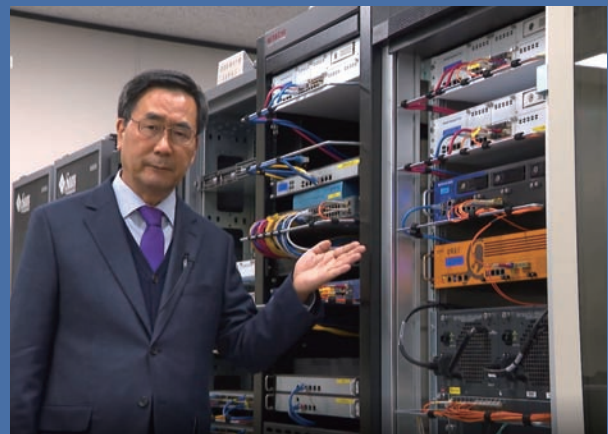
2021 CEO 메시지

김도훈 공단 이사장은 신축년을 맞아 고객들에게 창원레포트파크의 출범 소식과 함께 2021년 공단의 각오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2021년 **창원레포트파크**라는
새 이름으로 경륜사업뿐 아니라
레저 스포츠사업으로 영역 확대

코로나19 시대의 화두인 비대면에
발맞춰 고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경륜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베팅시스템 도입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대상경륜을 비롯해
고객과 선수간의 만남, 공정한 심판,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공간 조성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을 통해 시민의 발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신형 누비자 도입**
시민들이 **안전하게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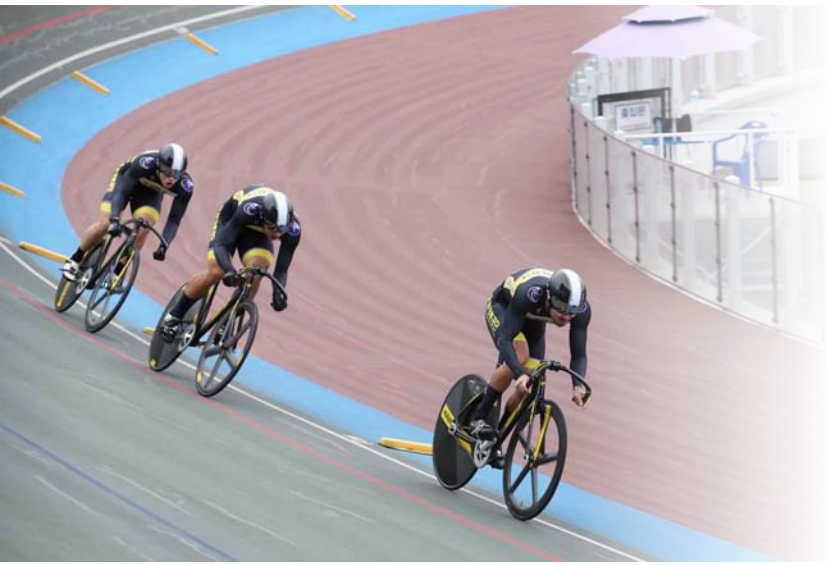
20년간의 발자취

공단은 창원 시민의 여가 선용과 지방 재정 확충, 자전거 경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년 9월 1일 설립되어, 동년 12월 8일 지방 최초로 지방 경륜의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년간 경륜사업을 통해 8조1,96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레저세 5,724억원, 지방교육세 2,860억원, 농특세 1,144억 등 총 9,728억원을 납부해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했다. 관련 업종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공단은 공기업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역할도 잊지 않았다. 두바퀴 사랑의 봉사단, 김해지점 자전거 무상 수리, 수해복구 대민지원, 농촌사랑 1사1촌 결연사업 등 총 800여회 연인원 2,80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고, 2003년 아시아사이클 선수권대회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공연 '아세안 판타지아' 등 국제 주요 행사에 장소를 제공해 경륜장 시설을 사회에 환원했다.

2002, 2004, 2005년 3회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공기업에 선정된 바 있고 또 2004년 제6회 지방공기업 경영 대상, 2019년에는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안정적 운영 등을 인정받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 최근에는 안전운전인증 최우수기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KOSHA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 인프라 구축과 안전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경륜이 시행되는 창원경륜장에는 지난 20년간 1,247만 6천여명의 고객이 입장해 총 49,707경주, 자체경주 25,546 경주가 펼쳐졌다. 또 35차례의 특별경륜과 지방 최초 한·일 경륜전을 개최해 고품격 경륜 경주를 고객들에게 선보였다. 2008년에는 김해지점, 2017년부터는 창원 본장에서 매주 수, 목요일마다 경정을 수신 중계하고 있다.

공단은 경륜 시행과 실업사이클팀 운영을 통해 2000년대 초반 '지존'이라 불리던 지성환 선수를 비롯해, 한일경륜 우승자 이현구 선수, 그랑프리 우승자 박용범 선수, 차세대 경륜 에이스 성낙송 선수 등 창원경륜장을 연고로 하는 많은 스타 선수를 배출해내며 자전거 경기력 향상에도 큰 이바지를 했다,

2010년부터는 국내 최초 공영자전거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관리와 운영을 맡아 현재 284개소의 터미널과 3,700 대의 누비자를 운영 중이며, 2020년 11월 30일 기준 5,684만 1,933회의 이용횟수로 창원시민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다. 또 2008년 개장한 전국최초의 자전거 종합 교육시설 자전거 문화센터는 총 6개 과정, 6,620명의 수료자를 배출해 자전거 생활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발매는 가장 건전하고 투명한 발매 수단!!!”

글 ICT개발 조기영

“코로나로 인한 사회의 변화...온라인 세상 앞당겨”

국내에서 합법 경주류 사행산업이라 불려지는 경마·경륜·경정은 출범 이후 기금조성과 체제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재정 확충에 특특히 효자 노릇을 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23일부터 모든 경주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재개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기금 및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림과 동시에 연장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의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어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합법 사행산업 자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다.

세계적으로 온라인 사행산업이 합법화되는 추세이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마, 경륜 시행국 중 경주가 중단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관중 없이 온라인 발매를 기반으로 하는 무관중 경주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발매 덕분에 기존 90% 선에서 매출 보존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니 온라인 발매가 가장 절실한 국내의 입장에서는 마냥 부럽기만 하다.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여론만을 의식해 합법 경주류 사행산업에 대한 온라인 합법화를 금지하고 있지만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불법 온라인 도박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합법 사행산업이 중지된 틈을 타고 불법 온라인도박이 급증하면서 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기관이 공개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합법 사행산업 규모(22조)의 약 4배에 달하는 81조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온라인 도박의 비중은 무려 66.8%를 차지한다고 하니 불법 온라인 도박의 팽창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한국 경륜의 온라인발매”

한국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는 2005년 7월에서 2007년 2월까지 시행하였으나 경륜·경정법 상의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일시 중단되었고 시행 근거만 마련한다면 재개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발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제한적이지만 사업장 내부인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발매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원격지에 대한 공간 규제만 아니면 사실상 온라인 발매는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합법 경주류 사행산업이 오프라인의 사업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①청소년 이용 등 미성년자 접근 ②도박 확산 및 이용고객의 구매상한선 등 건전화정책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온라인발매는 가장 건전하고 투명한 발매 수단!!!”

합법 온라인 발매는 본인 실명인증 기반으로 이용이 기술적으로 제한돼 청소년 접근이 원천 차단이 되고 모든 발매 기록들이 전자적으로 투명하게 저장되어 구매상한을 넘을 수가 없으며 오프라인에서 간혹 발생하는 현금 발매의 과몰입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부정적 우려와 달리 온라인 발매의 순기능은 합법 경주류 사행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전자식 구매수단으로 현존하는 발매방식 중 가장 건전하고 투명한 발매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시장의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불법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며 현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전문가들도 공개 세미나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의 근절을 위해 온라인 합법화 수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경영기반을 위해 조속히 온라인 발매가 재개되길 기대해 본다.

25기 특선급 임채빈 선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경륜,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없었던 떠오르는 경륜 스타 임채빈 선수를 만나보았다.

1.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훈련원에서 만나고 1년 만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훈련원 졸업과 동시에 시합을 출전해야돼서 쉼 없이 팀 훈련에 매진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무사히 특선급으로 특별승급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보상을 받는 거 같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6개월이 된 딸 덕에 딸 바보가 되어 훈련 외에 시간은 가정에 충실히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2. 작년 인터뷰 때 류재민 선수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시면서 수성팀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 예상했는데 역시 수성팀에 등지를 트셨더군요. 수성팀과의 훈련 호흡은 어떤가요? 그리고 롤 모델로 뽑았던 류재민 선수와의 훈련호흡은 어떤지? 어떤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

- 수성팀은 선수 한명 한명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원, 김원진, 류재민, 류재열 선수 등 선배님들께서 물심양면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저를 비롯한 후배 선수들은 그에 보답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팀 훈련에 참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류재민 선수를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배우고 싶은 점은 류재민 선수로 인해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도 파이팅하게 만들고 팀 선수들 개개인별로 세심하게 체크하면서 보듬어주는 부분이 제게 있어 가장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3. 졸업 후 경륜선수가 된 직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주가 중단됐는데 훈련이라던 지 개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면서 선수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큰 데미지가 있을 것이라 판단돼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가서 약 한달 간 훈련하며 지냈습니다. 지금은 대구 벨로드롬과 대구 근교 안전한 도로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경륜이 중단되어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도 항상 준비해야 하는 프로선수이기에 지금까지 쉼 없이 훈련을 해와서 수성팀 전원 경기력에 관한 부분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4. 우수급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댄 경주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 선행, 젓하기, 추입 등 다양한 전법으로 경주를 풀어 가던데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인지?

- 저는 매 경기마다 특별히 전법을 정하고 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인이다 보니 선행은 항상 염려해두고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풀기 전 출전명단을 확인하고 게임 전개와 상황에 맞게 타다 보니 모든 전법을 구사하게 되었던 거 같습니다.

5. 작년 인터뷰 때 당장 경륜선수로 활동한다면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을 거 같냐는 질문에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빠져나가셨죠? 그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타종 선행, 한 바퀴 선행을 하면서도 꽤 많은 차신을 벌리며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선급에서도 그런 경주 전개를 펼쳐 나갈 것인지? 또 통할 것이라고 보는지?

-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선행을 항상 염두해두겠지만 굳이 선행을 안가도 되는 상황이라면 후반부에 승부 타이밍을 노릴거 같습니다. 특선급에서도 타종선행, 한바퀴 선행을 가더라도 자신감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경륜선수 임채빈이 되겠습니다!



6. 후보생 시절 영상으로만 보던 프로경륜과 실제 겪어본 프로경륜의 차이점은?

-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차이점은 많은 고객님들께서 보시는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출발 전엔 조금 긴장이 됐었는데 출발 신호 소리와 함께 집중을 해서 경기력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환호해 주시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7. 현재 경륜에서 본인의 경쟁자로 꼽을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 제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선수들은 현재 SS급의 모든 선수들입니다. 이제 금방 데뷔한 신인이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다음 목표가 SS급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 선수들은 이겨내야 제가 SS급이 되는거니까요. 현 SS급 선수들 그리고 특선급 강자들의 경기 영상을 많이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꼭 SS급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경륜 팬들 사이에서 현 경륜왕제 정종진 선수와 임채빈 선수와의 맞대결을 기대하며 누가 더 강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종진 선수와 맞대결을 하면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경주를 풀어나갈 거 같은지?

- 정말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이제 막 데뷔한 저와 모든 선수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선수인 정종진 선수와의 대결을 기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선 강자들의 경주를 몇 년 전부터 수없이 챙겨봐 왔지만 정종진 선수가 현재 가장 빠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같이 시합을 하게 된다면 져하기를 당하든, 추입을 당하든 선행으로 정면승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야 다음에 다시 맞붙을 때 멋진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 작년 후보생 시절 인터뷰 때 이야기했던 후보생을 우수급으로 졸업해서 특선급으로 가는 첫 번째 목표는 이루셨고 두 번째 목표라고 하셨던 SS급으로 가는 길도 무난해 보입니다. 그 이후의 목표는 있으신지?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의 목표는 SS급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가 될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는 제가 소속된 수성팀 팀원들과 함께 높은 랭킹에 올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감히 불가능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10. 창원경륜을 사랑해주는 팬들의 임채빈 선수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경륜장을 찾아주시는 경륜팬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제가 광명 스피돔에서만 시합을 뛰었는데 많은 팬분들께서 성원해주고 계시다는 게 참 얼떨떨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대해 주시는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경륜선수 임채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창원 팬분들을 만나 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21
위풍당당
승승장구

단체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딴 후
세레모니를 하는 한동현 선수



▲ 창원레포츠파크 자전거팀이 단체스프린트 결승에서 출발하고 있는 장면

2020년은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종목 가릴 것 없이 국·내외 거의 모든 스포츠 대회가 연기와 취소를 반복한 한 해였다.

한국전쟁 때조차도 중단되지 않았던 100년 역사의 전국체육대회도 사상 초유의 연기를 결정했고 도쿄올림픽도 1년을 연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야외 개방형 피스트(경주로)에서 훈련을 하는 여타 자전거팀들과는 다르게 실내 피스트에서 훈련을 하는 공단 자전거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한 공단 피스트 폐쇄로 정상적인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됐다.

혹한기, 혹서기에도 정상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돛경륜장이 실내라는 이유로 오히려 독이된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 자전거팀은 6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개최한 KBS 양양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1, 은1, 동2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8월 개최 예정이던 8.15경축 2020 양양 전국사이클대회는 코로나19 확진세 급증에 따라 두 차례나 연기 개최되는 바람에 컨디션 난조로 은1, 동1라는 아쉬운 성적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공단 자전거팀은 2021년 군입대를 위해 팀을 떠나는 원준오 선수를 대신해 국가대표 출신 박민철 선수를 재영입했다.

팀의 막내 한동현 선수의 기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정재희 선수는 정점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2010년대 초중반 공단 자전거팀 부흥기를 이끌었던 박민철 선수까지 다시 합류해 2021년의 전망은 매우 밝음이다.

박상원 감독과 자전거팀 선수단은 2016년 이후 끊긴 전국체육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을 목표로 세우고, 마부작침의 자세로 담금질하며 신축년을 공단 자전거팀의 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구취&시린치아 관리 Q&A



2020년 한해는 생각지도 못한 COVID-19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생활, 여가활동, 여행 등 일상의 자유를 제한받는 불편한 한 해였지만 여러 부분에서 큰 교훈을 얻은 한 해이기도 하였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동반자처럼 입과 코를 가리고 있는 마스크로 인해 갑갑함과 종종 말할 때 입에서 나는 냄새로 불편함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또한, 점점 추워지는 날씨 탓에 물을 마시거나 입을 헹궜을 때 유독 치아가 시려서 칫솔질이 어려웠던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마스크는 일상이며 마스크를 하고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구강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흔히 '입냄새'라고 말하는 구취 관리와 시린 치아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 불쾌한 입냄새(구취)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구취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불쾌한 냄새를 뜻한다. 구취의 원인을 찾을 때 구강에서 비롯되는 구강 내 요인,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구강 외 요인,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본인은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크게 분류한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취를 느끼게 되는 원인은 구강 내 요인인 혀에 생겨있는 설태, 치아우식증, 치은염, 치주염, 불량한 구강 환경 등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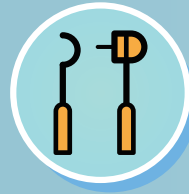
먼저 구강 내 요인으로 인한 구취 발생 시 관리법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칫솔질을 꼼꼼히 해서 구강을 청결히 하는 것이다. 매 식후와 취침하기 전에 반드시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어나서 칫솔질을 바로 하는 경우 식사 후엔 칫솔질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를 하면 치아에 부착되는 음식물 찌꺼기와 혀에 부착되는 설태로 인해 구강에서 구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바로 칫솔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식후에 칫솔질을 하는 것이 구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칫솔질 시 치아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구강관리용품을 이용해 혀와 치아 사이의 관리도 필요하다. 칫솔질 시 칫솔만을 이용해서 치아를 닦게 되면 치아 사이의 관리는 잘되지 않아서 치석제거술인 스케일링을 하러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아 사이에 치석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음식 섭취 후 치면세균막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점점 단단해져서 더 이상 칫솔질로 제거가 안 되는 것이 치석이다. 치면세균막이나 치석은 구강 세균의 집합체로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치간이 촘촘한 경우에는 치실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 면을 위아래로 닦아주도록 해야 되고, 치아 사이의 공간이 생겨 있으면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선택해 치아 사이를 닦아주어야 한다. 치실과 치간 칫솔은 매 칫솔질 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바쁜 아침시간과 점심시간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자기 전 칫솔질 시 하루에 한번만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아와 근접하게 있는 혀의 경우 설유두가 있어서 설태가 잘 생기는데 이것 또한 구취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 시 혀 세척기를 사용하거나 따로 구비가 어렵다면 칫솔로 혀를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혀를 닦을 시 헛구역질로 관리가 어렵다면 혀를 최대한 내밀고 닦는 것을 권장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기적인 치과 방문을 하여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하는 것이 좋다. 관리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안에서 지속적인 구취가 난다는 것은 제거되지 않는 치석이 이미 생겨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단단하게 붙은 치석은 절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여 치석을 제거해주도록 해야 한다. 치석은 쌓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강도가 더욱 단단해지기 때문에 치석 제거 시 불편감이 클 수밖에 없다.



윤나나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간단한 구강관리습관과 정기적 치과검진으로 건강한 구강 유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일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치석 제거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참고사항 : 치석 제거인 스케일링은 매년 1월~12월/1년에 한 번 건강보험적용으로 부담 없는 비용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치아우식증이 있거나 교체가 필요한 오래된 보철물 혹은 불량한 보철물이 있는 경우 음식물이 끼여 부패되기 때문에 구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문제 되는 것들이 없는지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린 치아의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치아가 시린 원인은 치아끼리 마찰로 인해 어금니의 씹는 부위나 음식을 절단하는 부위인 앞니가 심한 교모, 잘못된 칫솔질 방법 혹은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치아의 옆구리 부위가 마모되는 경우, 치아우식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치아의 교모나 마모는 치아의 단단한 부위인 법랑질이 닳고 치아의 속 부위인 상아질이 나타나 치아의 신경과 연결된 통로가 드러나게 되면서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치아의 지각과민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쌀쌀한 날씨에 차가운 걸 먹거나 혹은 칫솔질할 때 찬물로 입안을 헹굴 때 고통스러울 만큼 자극을 많이 받아 치과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치아 법랑질 부분의 손상이 심할 경우엔 치아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고, 치아우식증이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치아의 손상이 크지 않고 이런 지각과민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올바른 구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지각과민증으로 인해 칫솔질 시 불편감으로 치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치면세균막 형성으로 잇몸에 염증이 생겨 지각과민증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구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 먼저 사용하는 칫솔모의 강도가 강한 걸 사용하고 있다면 칫솔모의 강도가 약한 걸로 교체를 해주고 칫솔질 시 옆으로 세게 문지르는 방법의 칫솔질을 했다면 잇몸에서부터 부드럽게 여러 번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한다. 칫솔질 시 사용되는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시린 이 전용 치약을 권장한다. 시린 치아 전용으로 사용되는 치약 안에는 상아질 지각과민 치료제가 첨가되어 있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혹 이렇게 관리를 해도 증상 완화가 안된다면 치과에 내원해 정기적 불소도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불소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데 지각과민증 치아에 도포를 하면 치아의 신경과 연결된 통로가 메워져 시린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

보통 치과를 떠올리면 무섭고 아픈 곳이라는 인식이 많아 치과 내원이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한 구강관리습관의 변화와 정기적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을 관리한다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주상절리를 품은

경주 파도소리길

▼ 읍천항 해안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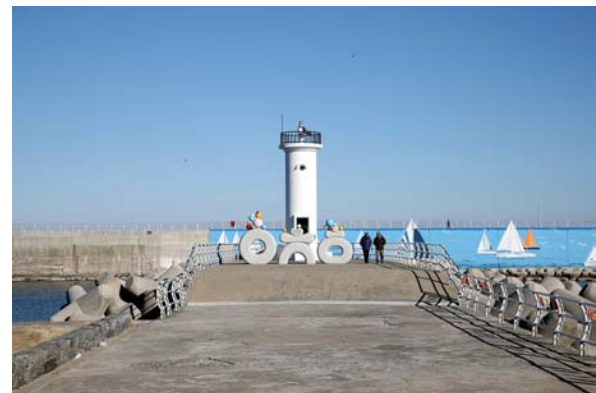
12월 한겨울에 찾은 경주의 동해안은 매서운 칼바람과 파도의 하얀 포말로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소리길은 부산에서 고성까지 이어진 총 길이 770km의 해파랑길 중 10코스의 일부로 경주의 동해안에 위치한 파도소리 길은 양남면 읍천항과 하서항을 잇는 1.7km의 해안 산책로다. 푸른 동해바다와 어우러진 경치가 빼어나고 왕복으로 가볍게 걸어도 2시간 안팎이면 충분한 데다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연인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로 유명하다.

오랜 시간 해안 작전지역이었다가 2012년 군부대의 철수와 함께 민간으로 개방이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그 덕에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었다. 넘실거리는 동해의 파도와 바위, 바람으로 유명한 파도소리길이지만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주도어나 가야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주상절리다. 신생대 현무암질용암이 흐르면서 굳은 것으로 추정하는 읍천리의 주상절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각형의 기둥이 수적으로 서 있는 형태가 아닌 누워있거나 기울어져 있거나 솟아있는 다양한 모습이다. 특히 부채꼴로 펼쳐져 마치 꽃이 활짝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상절리는 국내에선 처음 발견됐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이다. 길을 걷는 내내 여기저기 생성돼 있는 주상절리를 보면 흡사 자연사박물관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준다.

주상절리 전망대를 지나 나무 데크로 이뤄진 계단과 휴길이 적절히 섞인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잠시 쉬어가기 좋은 정자가 동해바다를 품고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폴짝폴짝 뛰며 지나가는 출렁다리 또한 파도소리길의 숨은 명소다.

특히 파도소리길이 읍천항은 벽화 마을로도 유명한데 다양한 형태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 연인,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 읍천항 등대전경
◀ 파도소리길



누비자로 떠나는 창원 관광



클 부산광역시 이창기

누비GO!!

올해 초 코로나 창궐 이후 우리는 여행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이 되었고 흔히 즐기던 여행은 나와 주변인을 질병의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전락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폭발 직전인 '여행 욕구'에 발맞춰 새로운 여행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투어고인사이트 제24호)에 따르면 '근거리', '야외활동', '가족단위', '청정지역', '명승지' 등이 새로운 여행 키워드로 떠올랐다. 즉,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배제하며 집 근처의 명승지를 찾는 당일치기 야외여행이 현 시대에 가장 현명한 여행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 '누비go'는 가깝지만 인적이 드물고, 자연과 명승지가 어우러진, 또한 누비자를 이용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진해의 '웅천역사 둘레길'로 떠나보았다.

웅천역사 둘레길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15호인 웅천읍성을 중심으로 들판과 하천, 마을, 역사유적들을 하나의 길로 연결하여 다양한 테마와 스토리를 제공하는 체형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둘레길은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달리거나 걷기에 좋다. 곳곳에 있는 역사유적을 둘러보며, 생태체험이 가능하도록 꾸며진 둘레길은 총 5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누비자로 즐기기에 가장 좋은 1코스를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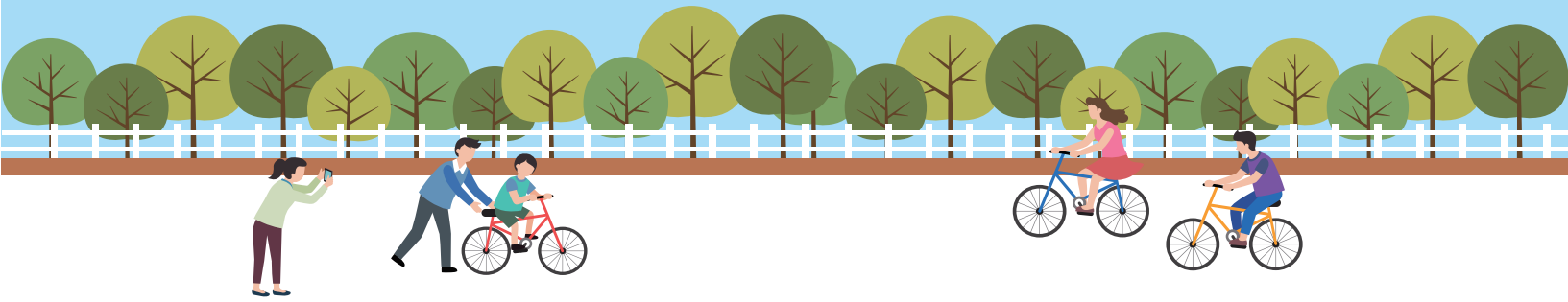
1코스는 총 1.2km로 읍성 동문, 주기철 목사 기념관, 동헌·객사터 등으로 꾸며져 있다.

코스의 시작점인 웅천읍성에 도착하면 먼저 넓은 주차터가 반겨준다. 드문드문 여행객들이 보이긴 하지만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는 수준이다. (주차비 역시 무료이다.)

그리고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웅천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누비자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게 누비자를 대여할 수 있다. 어쨌든 잘 정비된 누비자를 골라 타고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였다.

웅천읍성은 조선시대 불법거주 일본인과 왜구를 막기 위해 축조된 구조물이다. 그에 맞게 마을을 둘러싸듯 세워진 성벽은 두텁고 웅장한 위용을 자랑한다. 누비자를 타고 성벽을 천천히 따라가다보니 동문이 나왔다. 성문 방어를 위해 지어진 웅성의 독특한 형태를 구경하며 동문루에 올라보니 마을과 자연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보이는 산과 웅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의 풍경은 코로나로 꺾은 답답함을 해소하기에 충분했다.





동문루에서 내려와 다시 누비자로 달리다 보니 해자와 수로가 보였다. 수백년이 지나 이제는 옛 성곽의 흔적 정도로 남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역사체험의 장으로 찾기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성내로 들어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동헌과 객사터가 등장했다. 동헌과 객사터는 각각 행정을 처리하는 중심 건물, 사신이나 관리의 숙소로 조선시대 읍성을 구성하는 주요 건축물이다.

이들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니 웅천 읍성이 조선 시대 웅천현의 정치·경제·행정의 중심지에 위치한 치소로서, 조선 시대 읍성의 구조적 측면을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고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조선 정부 교린 정책의 첫 시험지라고 하는 만큼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돌려 여행 시작점 건너편에 있는 주기철 목사 기념관으로 향했다. 2015년에 건립된 기념관은 주기철 목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 흉상, 목사의 개인적 유품이 전시된 2층 건물로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깊은 곳이다. 기념관을 둘러보는데 2~30 분 정도 소요되며, 독립운동에 사명감을 갖고 모진 세상에 저항했던 주기철 목사의 삶을 회고하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지난 날 무수한 사람들의 피눈물로 쟁취한 발판임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의 여행과 비교하면 아쉬움은 있지만 붐비지 않고 탁트인 환경에서 자전거도 타고 역사적 의미까지 찾아본 이번 여행은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충분했다. 여러분도 코로나 시대에 마냥 답답함을 느끼기보다 웅천역사둘레길로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분명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창원레포츠파크에 거는 기대

글 창원 중앙동 이문순

2020년 12월 31일부로 창원경륜공단이 창원레포츠파크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새 이름을 얻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진통을 겪으며 탄생한 새 이름이기에 새 사명에 거는 기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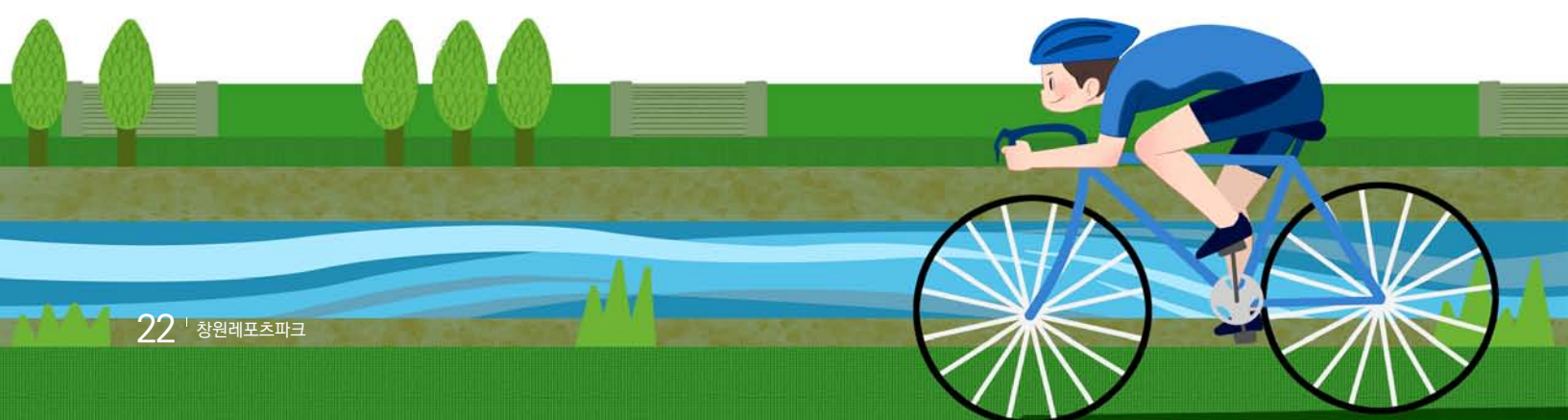
우선 창원 최고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사행성 냄새가 풍기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명을 20년이나 사용해온 것도 신기하다. 대부분의 경마장이나 경륜장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창원경륜장은 그야말로 시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20년 만에 이름을 바꾼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좀 더 일찍 바뀌어야 했다.

어쨌든 늦게나마 이름을 바꾼 것은 참 다행이고 그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레포츠파크'라는 이름도 잘 지었다고 생각한다.

한국마사회 경마장도 '렛츠런파크'로 부르지 제법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경륜장이나 경마장이나 모두 고객과 시민을 위한 시설이다. 지금까지 경륜장이 베틱 위주, 고객 위주의 시설로 존재했다면 이제는 시민을 위한 공원시설의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창원경륜장 아니 창원레포츠파크는 앞으로 이름에 걸맞는 공원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또한 레포츠파크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물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한다. '레포츠'란 단어가 레저와 스포츠의 합성어이면서 함축어로 알고 있다. 사명을 변경한 이유도 경륜사업뿐 아니라 레저·스포츠사업으로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름에 걸맞는 레저사업, 스포츠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아무튼 창원레포츠파크에 거는 기대가 크다. 몸담고 있는 직원들도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마음에서 탈피하여 새 사명에 걸맞는 자세를 갖추고 신축년 새해를 힘차게 달려나가길 바란다. 그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달성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 지역에는 꼭 필요한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



창원레포츠파크에 바란다!

글 창원 상남동 이해영

먼저 '창원경륜공단'이 '창원레포츠파크'라는 신규 사명으로 새롭게 출발함을 창원시민의 한 명으로 축하한다.

그간 공단은 경륜사업과 더불어 우리 시민들의 녹색교통수단인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알고 있었다. 특히, '누비자'는 어느 지자체보다 훌륭하게 공영자전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 운영을 '창원레포츠파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경륜사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시민의 자랑인 공영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물론 그동안 공단은 시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 (각종 행사 대관, 다함ضل 체험교실 등 문화 체험 등)을 전개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합법적인 베틱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륜'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명 변경이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이번 사명 변경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규 사업 분야에 진출한다고 알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한다면 '창원레포츠파크'라는 새로운 사명에 걸맞는 공단 이미지개선이 가능할 듯하다. 또한, '경륜'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보다 투명한 베틱 시스템 구축 및 선수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듯하다.

'COVID-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 아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시도 거리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점점 잦아들고 거리의 가게들도 한적한 모습이다.

'창원레포츠파크'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아주 오랫동안 영업이 정지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간 우리 지역의 모범 공기업으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공단이 그 여파로 큰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 같아 공단을 사랑하는 창원시민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힘든 역경을 잘 이겨내 새롭게 태어나는 공단이 되길 기원한다. 다시 한 번 창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뛰어라 레포츠파크”

글 창원 안민동 김갑선

여명이 밝아온다
밝은 해의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 등근 뒀을 에워싼다
출발의 깃발 높이들어
성난 황소의 등줄기 굽은 힘줄같은 투혼을 불사르자
벽차 오르는 희망의 노래
함께 부르자 솟아라 태양아!
뛰어라 레포츠파크!
두 바퀴 희망을 엮어 힘찬 페달을 밟아보자
부지런함을 깨워 멈추지 말고 달리자
지난 역경일랑 기억 저 편 눌러 버리고
홀~ 홀~ 진통의 언덕을 딛고 일어서 보자
너와 나 몸을 낮추고 위상은 높여
창원레포츠파크의 앞날에
악바리 힘을 보태자
살구꽃 향기같은 봄살이 돋을
그날을 위하여
어깨동무 다 함께
우리의 레포츠파크!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등~ 등~ 울려퍼지네

창원 레포츠파크 소식

주요 봉사활동

사랑의 동전 모금 전달



고객서비스팀 관내 환경 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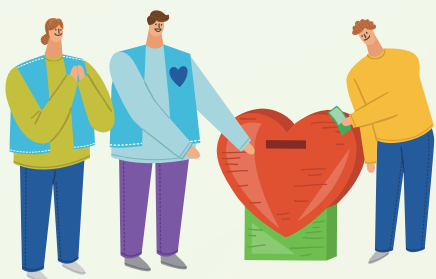
누비자 터미널 환경정비·방역



'사랑의 헌혈' 동참



합천군 수해복구 지원



인증 획득

최우수기관 안전운전 인증 획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 취득



주요 행사

누비자 우수 이용시민 '누비전' 지급 이벤트



환경체험 자전거투어 개최



관내 중·고교생 방송 체험 프로그램 실시





SNS를 통해 고객과 소통

창원레포츠파크는 사회관계망인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 공식 페이지를 개설하여 고객과의 소통에 나섰다. 앞으로 다양한 공단 소식 및 경주 정보 등을 업데이트하고 고객의 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CwDomerace
- ☆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cw_domerace
- ☆ 유튜브채널 : 창원레포츠파크(경륜TV)



2021년도 예산현황 공시

창원레포츠파크 2021년도 예산현황을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1월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김도훈

1. 2021년도 예산규모 : 30,680백만원(2020년도 예산 34,104백만원)

2. 수지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예산	2020년 예산	증감	비고
수입예산	30,680	34,104	△3,424	
수익적 수입	28,820	30,680	△3,787	
자본적 수입	1,860	1,497	363	
지출예산	30,680	34,104	△3,424	
사업예산	28,820	32,607	△3,787	
영업비용	28,740	32,499	△3,759	
영업외비용	55	70	△15	
법인세등	15	20	△5	
예비비	10	18	△8	
자본예산	1,860	1,497	363	
투자자산	0	0	0	
유형자산	1,716	1,235	481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140	258	△118	
예비비	4	4	0	

창원 2021년부터 창원경륜공단이 레포츠파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립경영 실현을 통해 레포츠(레저+스포츠)를 선도하는 공기업

경영수지
안정화

건전 레포츠
정착

지역사회
공헌 우수
공기업



No.! 지나친 구매행위는 자신과 가정에 해가 됩니다.